

삿포로에서 설 체험

新年好(신 년 하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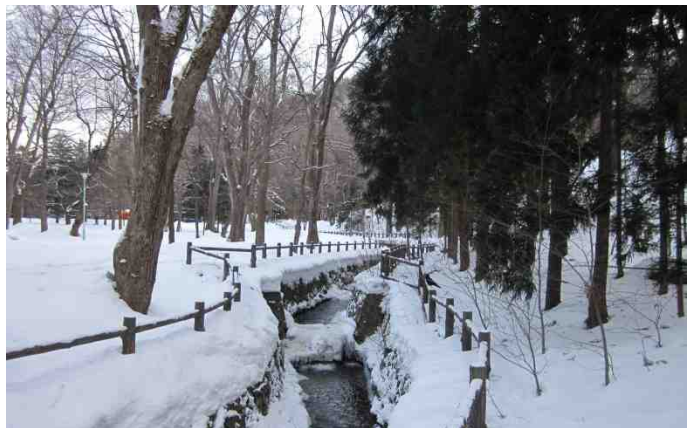
저는 삿포로시 중국국제교류원 하소운입니다.

삿포로에 온 지 이제 곧 2 년이 되어가지만, 일본에서 설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삿포로에서 겪은 설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요? 저는 홍백가합전(NHK 에서 방송하는 가요 프로그램), 하쓰모데(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신사나 절 등에 가서 참배하는 행사) 등이 일본 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백가합전’은 매년 설날 그믐날 밤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형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 해를 대표한 여성 아티스트를 홍팀, 남성 아티스트를 백팀으로 나누어 대결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노래나 연주가 펼쳐집니다.

‘홍백가합전’은 설날 그믐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저는 삿포로에 오기 전부터 중국에서 자주 인터넷으로 홍백가합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삿포로에서 설을 보내기로 하여



마루야마 눈경치

홍백가합전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설날 그믐날 밤에는 친구를 불러 집에서 뜨끈한 전골요리를 먹으며 홍백가합전의 생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친구와 저는 남성 아티스트의 백팀을 응원했기 때문에 백팀의 퍼포먼스가 나오면 먹는 것도 잊은 채 코멘트를 주고받으며 흥미진진하게 감상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아티스트가 나오면 뜨끈뜨끈한 전골에 주목하여 친구와 즐겁게 잡담을 나눴습니다.

올겨울 삿포로는
예년보다 눈이 많아 낮
최고기온이 영하에
머무르는 날이 이어지고
있어 밖에서 뽕뽕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골 요리는
그야말로 최고! 우승팀
결과 발표 직전에는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하쓰모데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뛰었습니다. 기쁘게도 우리가 응원했던 백팀이 우승했습니다! 백팀의 우승 축하와 함께 우리는 샴페인으로 건배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친구와 함께 홋카이도 신궁으로 하쓰모데에 갔다 왔습니다. 하쓰모데란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신사나 절 등에 가서 참배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일 년 동안의 감사 인사를 올리거나 신년의 무사 평안을 기원합니다. 홋카이도 신궁에는 오후에 갔는데도 하쓰모데의 긴 행렬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경치 속에 멈추어 서 있는 홋카이도 신궁은 장엄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데미즈야에서 손을 씻고 입을 행구고 우리는 길게 늘어져 있는 줄에 서서 참배 순서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 새전(신이나 부처에게 바치는 돈)을 새전함에 던지며 신년의 무사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일본다운 설날을 보내서 좋은 1년이 될 것만 같습니다.

삿포로에서 일본의 설날을 체험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홋카이도 신궁 홈페이지:

URL: <http://www.hokkaidojingu.or.jp/index.html>